

성경말씀 맛들이기

신약 성경

이름 _____

기쁨소식

추천사

이번에 심홍보 신부님이 신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맛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뻐했습니다. 신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회의 기본 정신들을 익혀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며 식별하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여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신약 성경의 맥과 흐름을 한 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및 행적을 맛보고, 사도행전을 통해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생활상과 사도들의 활동상을 엿보고, 사도 바오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서간들을 통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마다 집필 동기를 살피며 원인이 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도록 이끄는지 살펴 본 다음 한 구절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실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성경말씀 맛들이기’를 통해 주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맞들임으로써 주님과 정을 조금이라도 쌓아 주님의 은총을 풍요롭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강생 2012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리며 서울대교구장 착좌일에
제14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머리말

이 책 ‘성경말씀 맛들이기’는 기존의 성경공부가 점차적으로 전 문화되어감에 따라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고, 또 성경공부는 성경공부대로, 성경묵상과 현실적용은 소공동체 모임이나 묵상나누기를 통해 체득해야 하는 이중구조를 초보자들에게 맞춘 양성서입니다. 새 신자들이나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들에게 다소 쉽게, 첫째 성경을 이해하면서, 둘째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묵상하며, 셋째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성경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신약 성경 27권 각 권에 대해 ‘집필 동기와 목적’과 ‘구성과 내용’ 등의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각 성경 본문 중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했습니다. 각과의 순서는 신약 성경을 그 시대배경에 맞춰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먼저 그리고 서간들을 집필 연대순으로 꾸몄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 과정을 밟으려면, 봉사자가 30분 정도 종합 강의를 하고, 10분 정도 개인 묵상과 나눔 준비를 한 후, 봉사자의 안내로 30-40분 정도의 그룹 나눔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읽는 것이 훨씬 좋고, 읽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가끔은 자신이 읽은 것을 기도하면서 묵

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고 묵상한 것을 이웃과 나누면 더욱 좋겠습니다.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자의 다른 삶 속에서 깨우친 내용을 나눔으로써 각자 성경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식별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식별된 내용을 자신과 공동체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에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4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생애를 읽은 후 우리들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하고 나누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주간을 마친 후 공휴일이나 주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리고 건설하는 새사람이 되도록 성경 피정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신약편의 전후에 성경말씀 맛들이기 구약편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맛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천사를 써주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과 이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해주신 라병국, 홍상표, 박진수 신부님, 특별히 성경의 각 권마다 일일이 사진을 넣어주시고 피정을 통해 이 원고를 작성하도록 배려해주신 김귀웅 신부님과 서귀포 성당 신자들, 애써 교정해주신 강 디모테아, 심 가타리나 수녀님, 삼성동 성가정 성당 교리교육위원회 이 리타님을 비롯한 견진교리 담당 강학 회원들, 윤 마리아님을 비롯한 예비신자교리 담당 명도회원들, 이 세라피나 본당 사무장님을 비롯한 본당 식구들, 그리고 이 원고를 기꺼이 출판해주신 기쁜소식 전갑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천주강생 2012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삼성동 성가정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 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소서.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시어 주님을 저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 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경말씀 맛들이기 신약 성경 읽기표

추천사

머리말

1주 초기 복음서

신약 성경 12

1. 마르코 복음 14

2. 마태오 복음 18

2주 복음서와 사도행전

3. 루카 복음 22

4. 사도행전 26

5. 요한 복음 30

3주 사도 바오로의 서간

사도 바오로의 선교여행과 서간 집필시기 34

6.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2 36

8.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2 40

10.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44

11.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48

4주 사도 바오로와 옥중서간

12.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2

13.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6

14.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60

15.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64

5주 가톨릭(공동) 서간

16.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68

17. 야고보 서간(공동서간) 72

18. 베드로의 서간 1, 2(공동서간) 76

20. 유다 서간(공동서간) 80

6주 요한계 문헌과 사목서간

21. 요한의 서간 1, 2, 3 84

24. 요한 묵시록 88

25.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1, 2(사목서간) 96

27. 티토에게 보낸 서간(사목서간) 100

7주 일일 성경 피정 104

부록1 신약 성경 연대기 114

부록2 신약 성경 소제목과 장절 116

부록3 참고문헌 142

성경말씀 맛들이기 구약 성경 읽기표

추천사
머리말

1주 생명과 구원의 하느님

구약 성경

모세 오경

1. 탈출기
2. 창세기
3. 레위기
4. 민수기
5. 신명기

2주 왕정의 몰락과 귀환

역사서

6. 여호수아기
7. 판관기
8. 룻기
9. 사무엘기 1, 2
11. 열왕기 1, 2
13. 역대기 1, 2
15. 에즈라기 · 느헤미야기

3주 박해와 위기

17. 토빗기
18. 유딧기
19. 에스테르기
20. 마카베오기 상권
21. 마카베오기 하권

4주 하느님의 선물

시서와 지혜서

22. 욥기
23. 시편
24. 잠언
25. 코헬렛
26. 아가
27. 지혜서
28. 집회서

5주 하느님의 사람

예언서(활동연대순)

29. 아모스서
30. 호세아서
31. 이사야서
32. 미카서서
33. 예레미야
34. 애가
35. 바룩서
36. 나훔서
37. 하바쿱서

6주 희망

38. 스바니아서
39. 에제키엘서
40. 하박기서
41. 즈카르야서
42. 오바드야서
43. 요엘서
44. 요나서
45. 말라키서
46. 다니엘서

신약 성경

1)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biblion/testamentum)

하느님께서 영을 보내시어 성경을 쓰는 작가들에게 그 때 그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등의 생각을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그러한 생각과 비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상기하고 그 상기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다시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거둬 일어나는 문제들에 적용함으로써 성경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은 46권으로 대개 히브리어와 아람어(유배 이후)로 쓰였습니다(유다 교포 공동체를 위하여, 70명의 학자가 70일 동안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LXX) 성경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식민지 그리스 언어인 코이네(Koine)로 쓰였습니다. 개신교와 유대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제2경전)의 히브리어 원본이 콤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2) 열혈당원, 하시딤, 바리사이, 에세네, 율법학자, 사두가이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유대인들이 무장봉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열혈당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민족의 헬레니즘 문화

와 종교를 거부하고 유다 율법에 충실하려는 경건한 이들(하시딤)이 있었습니다. 하시딤파에서 율법을 규정 그대로 지키려는 ‘바리사이파’와 혼탁한 세상을 떠나 콤란에 새 율법 공동체를 세운 ‘에세네파’가 생겼습니다. 율법을 풀이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은 바리사이들입니다. 비교적 당대 지도층이었던 ‘사두가이파’는 모세 율법만 성실히 따랐고, 바리사이파와 달리 천사나 사후의 심판과 상벌 및 부활신앙 등을 거부하며 현실의 축복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암 하렛즈, 디아스포라

율법을 잘 모르거나 삶이 너무 척박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은 소외된 이들을 ‘암 하렛즈’(땅의 백성)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티나(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유배를 통해 정착하여 살면서 지역 주민과 동화되기보다는 유대교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4) 로마와 헤로데 가문

기원전 64년 로마가 시리아를 속주로 만들고 팔레스티나도 시리아 속주에 포함시키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유다 하스모네 왕가는 몰락하고 헤로데 가문이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잡아들였던 헤로데(마태 14,1-12; 마르 6,14-29; 루카 3,1-20)와 예수님을 심문했던 헤로데(루카 23,7-15)가 바로 헤로데 대왕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1. 마르코 복음서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후 33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도 하나 둘 순교하여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60년대 말 어느 정도로 성장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성전에서 쫓겨나기 시작하고 신흥 종교로 분리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살던 유대인(디아스포라/교포)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느님의 아들’ 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약 70년경 이스라엘 외부에서 마르코 복음서를 썼다고 추정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유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화를 많이 수록하여 ‘예비신자를 위한 복음서’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서 중에 예

수님의 생애를 가장 짧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마르코는 초대교회의 전승을 이어받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보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 대한 세상의 ‘배척과 거부’, 죽음과 부활로 드러나는 ‘감추어진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에 의한 종말과 유대인 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구원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구성과 내용

마르코 복음서는 모두 16장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1,1)의(에 관한) 기쁜 소식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밝혀지는 메시아 비밀, 수난예고에 이어지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묵묵히 걸어 나가 마침내 수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죽이면 없어지고 사라질 줄 알았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1. 머리말(마르 1,1-13) 세례자 요한의 준비와 기쁜 소식의 시작이신 예수님
2. 갈릴래아 활동기(마르 1,14-8,30)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예수님
3. 예루살렘 상경기-수난 예고와 제자 교육(마르 8,31-10,52)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4. 예루살렘 활동기(마르 11,1-16,8) 수난과 부활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비밀 - 하느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예수님
5. 후기(마르 16,9-20)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세례와 첫 전도(마르 1,9-11,14-20)

1⁹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¹⁰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¹¹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¹⁴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¹⁵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¹⁶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¹⁷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¹⁸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¹⁹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²⁰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예수님께서서는 무죄한 하느님의 외아들이셨지만 죄인들 틈에 끼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세례 때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서는 백성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첫 제자,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합니까?
3.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4.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우리 사회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느낍니까?
5.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6.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주님의 뒤를 따르시렵니까?
7. 마르코는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해 또는 누구를 통해 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있습니까?
8.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마태오 복음서

집필 동기와 목적

마태오 복음사가는 교포 유다인들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율사(율법학자)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교포 유다인들을 위해 시리아 안티오키아 지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다고 추정합니다. 그는 50-60년대에 쓰인 ‘예수님 어록’(Q 어록)과 60년 말에 쓰인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80-90년대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집필했다고 간주합니다.

마태오는 ‘우리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임마누엘)과 다윗의 아들이시며 임금이신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예언해온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등을 강조합니다. 그는 또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새



롭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교 교회를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중심의 원로단(사도 21,18 참조)과 이방교회의 감독과 봉사자들(필리 1,1)을 교직자로 삼고, 18장에서 교회에서 지킬 규범들을 제시하는 등 교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마태오 복음서를 ‘교회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구성과 내용

마태오 복음서는 모두 28장입니다. 다섯 개의 설교(5-7장 산상 설교; 8-9장 열 가지 이적; 10장 파견 설교; 13장 비유 설교; 18장 공동체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짜임새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두 주제에 맞추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예수님 탄생(마태 1-2장)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역사와 예수님의 유년시절
2. 활동 준비(마태 3,1-4,11)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활
3. 갈릴래아 활동기(마태 4,12-18,35) 설교 말씀(5-7장 산상 설교, 8-9장 열 가지 이적, 10장 파견 설교, 13장 일곱 비유 설교, 18장 공동체 설교)과 말씀이 현실에서 실현된 기적으로 드러나는 하늘 나라
4. 예루살렘 상경기(마태 19,1-20,34)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5. 예루살렘 활동기(마태 21,1-28,20) 성전정화와 종말예고(23-26
심판 설교) 및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부
활,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명을 받는 교회

말씀 주님의 기도(마태 6,7-15)

6⁷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
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
한다. ⁸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⁹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¹⁰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¹¹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¹²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¹³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¹⁴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
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¹⁵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
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마술처럼 반기기나 하고 자기들의 이익이
나 챙기는가 하면, 누구 하나 진실하게 따라오지 않으며, 예수님
의 진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기조차 안하는 세상을 접하면서 예
수님께서는 그 답답하고 공허한 세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특별히 줄을 댈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인간을 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아
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살아갈
영육의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
으로부터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악마와
그 악마에 사로잡혀 그런 행동을 하는 이를 향해 우리 마음으로
부터 복수하고 싶어지는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죄악에서 우리
를 구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하느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3.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4.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5.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3. 루카 복음서

집필 동기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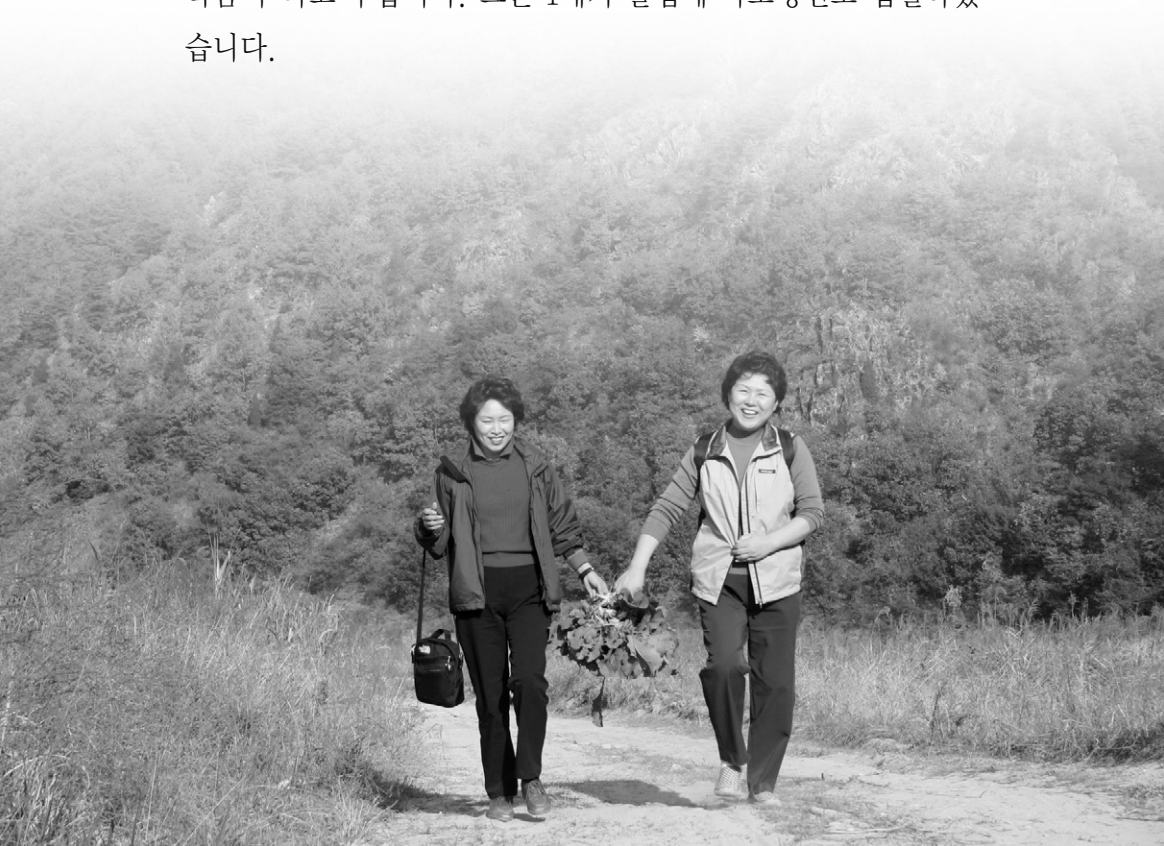
루카 복음사가는 80-90년경 이방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루카 복음서를 썼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오로의 제2차 로마 죄수 시절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기에, 루카 복음서를 ‘가난한 이들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는 1세기 말엽에 사도행전도 집필하였습니다.

루카는 그리스도와 구원, 성령과 교회, 재물과 종말에 관심을 둡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재물은 교회 공동체와 가난한 이들과 나누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에 나서고, 믿음을 보존하고 유혹을 이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성과 내용

루카 복음서는 모두 24장입니다. 루카는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는 ‘이스라엘의 시대’, 구원이 이룩되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교회 시대’(사도행전)로 구분했고 종말에 모두 구원되리라는 희망을 설파했습니다.

1. 머리말과 예수님의 탄생사(루카 1,1-2,52)
2. 활동 준비(루카 3,1-4,13)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갈릴래아로 가서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3. 갈릴래아 활동기(루카 4,14-9,50) 고향인 나자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다른 고을로 가시는 예수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4. 예루살렘 상경기(루카 9,51-19,28)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갈릴래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5. 예루살렘 활동기(루카 19,29-24,53)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 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뒤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

말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30-37)

10 ³⁰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³¹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³²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³³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³⁴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³⁵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³⁶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³⁷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어느 날 눈을 떠 보면 봄이고, 또 다른 어느 날 눈을 떠 보면 가을입니다. 매일 집을 드나들면서도, “신부님, 신부님 집 앞에 꽃이 피었어요.”라는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아, 꽃이 피었어요?’ 하며 꽃구경을 하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무심코 지나는 세월, 무심코 지나는 풍광……. ‘무엇이 그리 바쁜지? 아니면,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기에, 그 외의 여타 다른 것들을 그렇게 지나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사람도 지나쳐오지 않았나’ 하고 되돌아 봅니다. 내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를,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청했던 수많은 눈동자들이 있었을 텐데……!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무슨 일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3.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 때 도움을 받으며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4.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과 친척,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 중에서 찾아 봅시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4. 사도행전

집필 동기와 목적

루카는 루카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을 80-95년 사이에 썼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아 군세계 창립된 초대 교회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께서는 놀라운 힘으로 인종과 나라와 인간의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제자들을 휘감아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십니다.

사도행전이 이상적인 공동체로 그린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을 표기한 2장 42절은 성체성사의 네 가지 요소를 드러냅니다. 첫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 형제들, 특별히 박해로 가난해진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는 “친교(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셋째, “빵을 떼어 나누고”(미사의 성찬례/주님의 만찬 1코린 11,20), 넷째, 성찬 때의 공동기도를 뜻하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열 두 사도들의 무대가 예루살렘이었던 반면,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교회상을 비롯한 신자들의 복음선포와 전도여행을 통한 교회 공동체 건설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성과 내용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기록한 루카 복음서에 이어 지리적인 흐름을 따라 선교의 길을 나서는 ‘교회의 길’을 전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원로원의 사도 베드로, 후반부에서는 이방 선교의 사도 바오로의 활동을 펼칩니다.

1. 성령으로 탄생한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사도 1,1-5,42)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1,1-2,47), 사도들을 통해 활동하시는 성령(3,1-5,42)
2.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확장되어 가는 교회(사도 6,1-12,25) 스테파노의 선교(6,1-8,3), 필리포스의 선교(8,4-40), 바오로의 회심과 팔레스타인 서쪽 선교(9,1-43), 베드로의 이방 선교(10,1-11,18), 안티오키아 선교(11,19-12,25)
3.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한 바오로의 선교 여행(사도 13,1-28,31) 바오로의 제1차 선교(13,1-14,28), 예루살렘 사도회의(15,1-35), 2차 선교



(15,36-18,22), 3차 선교(18,23-21,16) 여행과 로마 선교(사도 바오로의 수난(21,17-24,27) 및 그리스도의 수인인 바오로(25,1-28,31))

말씀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사도 2,1-4.36.41-47)

2¹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³⁶“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⁴¹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⁴²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⁴³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⁴⁴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⁴⁵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⁴⁶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⁴⁷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어릴 땐, 내 것 네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있으면 함께 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할 때마다 자주 쓰고, 즐겨 쓰게 되고, 점차로 내 마음에 들고 내 손에 익은 내 것이 생겼습니다. 또 그런 것은 웬지 더 좋은 다른 것이 있어도, 내 것보다 아주 월등히 좋지 않으면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을 같이 했던 내 것을 누군가가 건드리는 것만도 참 편치 않았습니다.

가장은 열심히 일을 하여 번 것을 가족과 나눕니다. 자기의 것인데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데도 아낌없이 가족과 나눕니다. 그것은 자신이 돌보고 자신의 인생을 공유해야 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족은 오늘 어디에 있는 누구까지일까 생각해 봅니다.

미사와 성사 때 신자들을 보면 반갑고,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충분히 만났는데도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고, 만나서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일을 나눌 때 참으로 좋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며 친교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며 보람이기조차 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3. 누구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4. 나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5.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6.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모습과 오늘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나눕시다.

5. 요한 복음서

집필 동기와 목적

요한 복음사가는 90-100년경 소아시아의 에페소에서 세상 모든 이민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 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봅니다. 공관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사건보고 형식으로 기록했다면, 요한 복음서는 전승 내용들을 음미하고 재 해석된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영적인 복음서’ 라고 부릅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과 기적) 보다 ‘누구이신지’ (존재와 인격)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희망을 전합니다.

요한은 당시 깨달음으로 구원된다는 영지주의의 사조에 반대하



여, 깨달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실현함으로써 구원된다는 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육화 그리스도론’을 특별히 ‘말씀 찬가’ (1,1-18)를 통해 부각시킵니다.

그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종말과 구원에 대해, 보호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과 성사에 대해,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와 믿음으로 드러나는 표징에 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구성과 내용

요한 복음서는 모두 21장입니다. 요한 복음서는 말씀 찬가에 이어, 일곱 표징을 중심으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전하는 ‘표징의 책’과 때가 되어 수난하시고 부활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책’으로 구분됩니다.

1. 말씀의 새로운 창조(요한 1,1-18) 말씀(로고스) 찬가-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
2.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표징(요한 1,19-12,50) ‘표징의 책’으로 카나의 혼인잔치(2,1-12)와 왕실 관리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심(4,46-54), 벳자타 못 가의 병자 치유(5,1-18), 보리빵 다섯 개(6,1-15), 물 위를 걸으심(6,16-21), 눈먼 소경(9,1-41), 라자로의 소생(11,1-44)이 중심을 이룹니다.
3.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요한 13,1-21,25) ‘영광의 책’으로 최후 만찬 준비(13,1-18)와 고별설교(14,1-17,26), 수난(18,1-19,42)과

부활(20,1-29)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 후기(요한 21,1-25) 제2 작가가 일곱 제자 발현 사화, 시몬 베드로의 사목활동, 베드로의 순교, 애제자의 운명 등의 전승을 모아 기록했다고 추정합니다.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요한 14,6.15-21.23.25-26)

14 ⁶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¹⁵“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¹⁶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¹⁷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¹⁸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¹⁹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²⁰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²¹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²³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²⁵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²⁶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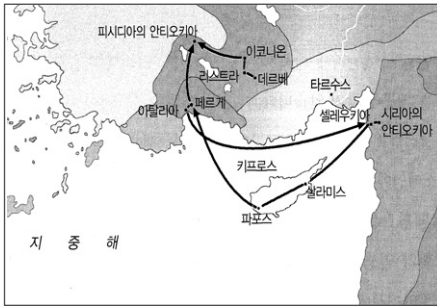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즉 이웃 구원을 위한 자기희생의 길이 우리가 걸어 가야 할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될 진리의 길이며,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펼쳐진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도 웬지 그 길이 조금 더 넓었으면, 그리고 조금 더 구부러졌으면 하는 마음이 살금살금 스며드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귀로에 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못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듯 ‘유혹에는 빠지더라도 악에서는 구하소서!’ 하고 빌게 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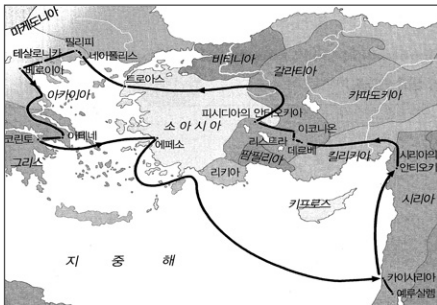
사도 바오로의 선교여행과 서간 집필시기

45-49년경 제1차 선교 여행(사도 13-1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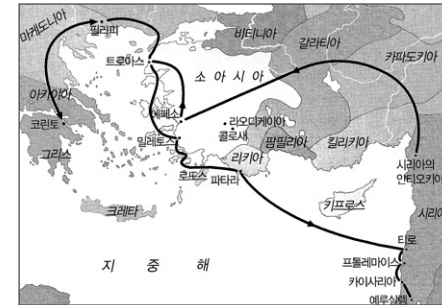
- 44년경 바르나바의 초대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목함(사도 11,19-30).
- 45년경 바르나바와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참석함(갈라 2,1-10).

50-52년경 제2차 선교 여행 (사도 15,36-18,22)



- 코린토에 18개월 동안 머무르며 테살로니카 1서 집필함.
- 52년 봄 코린토 유대인들에 의해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당함(사도 18,12-17).

54-58년경 제3차 선교 여행 (사도 18,23-21,16)



- 54-57년, 갈라티아 지방 교회들을 살펴 보고 에페소로 가서 27개월간 체류(사도 19,8-10); 갈라티아서, 코린토 1서 집필, 에페소 감옥에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집필, 석방 후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코린토 2서 집필함(사도 20,1;2코린 2,12-13; 7,5-7).
- 57년 초 코린토에서 석 달 가량 지내는 동안(사도 20,3) 로마서 집필함.
- 58년 무교절을 필리피에서 보내고 트로아스, 밀레토스, 티로, 프톨레마이스, 총독부 카이사리아를 거쳐 오순절 무렵 예루살렘에 상경하여 성전에서 체포됨(사도 21,27-36).

6.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2

집필 동기와 목적

사도 바오로는 제2차 선교여행(50-52년경) 중에 실라스(실바노)와 티모테오와 함께 그리스 필리피에서 전교하여 교회를 세웠지만 곧 박해로 추방되었습니다(사도 16,11-40; 1테살 2,2). 테살로니카에서도 마찬가지로(사도 17,1-10). 바오로는 걱정이 되서 티모테오를 테살로니카로 보냈는데, 티모테오가 코린토로 넘어간 바오로에게 좋은 회신을 전해주자,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첫 번째 서간을 보냅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쓰인 책이기도 한 이 서간에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힘차게 활동하신다(1,5)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2,20)라고 감격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3,7). 사도와 교회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바로 그 시련을 지금도 겪으며(1,6; 2,14)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영광에 이미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날’ (구약의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테살로니카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주요 교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부르시어 신앙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시어 하늘에 살아 계십니다. 신자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의 선포와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활동하십니다. 이제 신앙인은 자신의 부활을 굳게 확신하고 고대하면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각 도시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과 형제적 사랑으로 한데 뭉쳐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구성과 내용

1. 테살로니카 1서는 테살로니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믿는 이로서 지녀야 할 자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 1) 바오로와 테살로니카 교회(1테살 1,1-3,13)
- 2) 주님과 더불어(1테살 4,1-5,11)

2. 테살로니카 2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질서하고 게으른 생활을 고치도록 준비시킵니다.

1)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2테살 1,1-3,5).

2) 질서를 지키고 선함과 근면으로(2테살 3,6-18)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1테살 5,12-24; 2테살 3,12-13)

5 ¹²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¹³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¹⁴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¹⁵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¹⁶언제나 기뻐하십시오. ¹⁷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¹⁹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²⁰예언을 엿신여기지 마십시오. ²¹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²²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²³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²⁴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3 ¹²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 하십시오.

¹³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사도 바오로는 ‘기쁨’(필리 3,1; 4,4; 로마 12,15; 2코린 13,11 등)과 끊임없는 ‘기도’(로마 15,30; 필리 4,6; 콜로 4,2) 그리고 ‘감사’(에페 5,20; 필리 4,6; 콜로 3,17; 4,2)를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 세 가지 말씀은 내게 아무런 아픔이나 아쉬움이나 절망이 없는 평범한 삶에서나 나올 법한 공염불이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보다는 못해도, ~보다는 낫으니” 식의 감사일까? 처절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감성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아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의 기쁨과 감사이라.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언제 기뻐십니까?
3. 언제 기도하십니까?
4. 언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라고 하시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누어 봅시다.

8.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2

집필 동기와 목적

바오로는 필리피와 테살로니카 지역에서 쫓겨난 후, 코린토 교회를 세웠습니다(사도 18,1-17).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티모테오를 코린토 교회로 보내면서 먼저 코린토인들에게 서간을 보냅니다. 그는 갓 태어난 코린토 교회의 당파와 분열, 패륜과 불륜 등의 윤리적 타락,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성찬, 사랑의 실천보다 성령의 은사만 추구, 예루살렘 교회 돕기에 불성실한 태도 등의 문제들을 대면하고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해주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해줍니다. 바오로는 신앙의 기초가 '주님의 성찬' (성체성사 1코린 11,23-26)과 '부활신앙' (1코린 15,3-5)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오로는 57년 봄에 코린토를 떠나 필리피에서 해방절을 보내고 (사도 20,6) 예루살렘에 상경했다가, 성전에서 로마군에게 체포됩니다. 카이사리아 총독부에서 두 해 동안 미결수로 옥고를 치르고, 네로 황제에게 상소한 까닭에(사도 25,11) 로마로 압송되어 두 해 동안(60-62년경)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립니다(사도 28,30-31).

구성과 내용

1. 코린토 1서는 모두 16장으로, 코린토인들이 신앙과 현실 안에서 부딪친 문제들에 대해 대답합니다.
 - 1) 교회의 분쟁과 파벌을 책하고 교회 일치 촉구(1코린 1,1-4,21)
 - 2) 그리스도의 신비체(1코린 5,1-6,20)
 - 3)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찬례 준비자세(1코린 7,1-11,1)
 - 4) 성찬례와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고 사랑의 완성(1코린 11,2-14,40)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송가
 - 5) 부활과 구원으로의 희망(1코린 15,1-16,24)
2. 코린토 2서는 모두 13장입니다. 사도 바오로를 거부했다가 회개하고 화해하는 등 코린토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코린토 교회의 구원과 모든 교회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 1) 사도 바오로와 코린토 공동체와의 화해(2코린 1,1-7,16)
 - 2)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모금(2코린 8,1-9,15)
 - 3) 눈물의 서간(2코린 10,1-13,13)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1코린 3,16-17; 12,4-7.12-15.25-28)

3 ¹⁶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¹⁷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2 ⁴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⁵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⁶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⁷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¹²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¹³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¹⁴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¹⁵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²⁵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²⁶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²⁷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²⁸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

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바오로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상(1코린 3,16-17)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1코린 10,16-17; 11,19; 12,2-26)을 보여줍니다. 바오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머무시며 교회를 이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교 신자들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여러 민족의 신자들 각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다는 “그리스도의 몸”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내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갖가지 욕망과 의지들을 되새깁니다.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휘감고 그 탐욕스런 욕망과 의지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너 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머물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주님의 넓디넓은 아량을 심어주시기를 청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3. 하느님께서 공동선을 위하여 각자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셨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에 봉사하시겠습니까?
4. 교회의 교인들이 내 식구라는 마음이 됩니까?

10.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제2차 전도여행 때(50-52년경)에 사도 바오로는 실라스 및 티모테오와 함께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건너와서 유럽에서 맨 먼저 필리피의 옷감장수 리디아라는 부인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사도 16,11-40). 바오로는 자신이 에페소의 옥중에 있을 때 필리피 신자들이 도와준 데 대해 고마운 뜻을 전하려고 56-57년에 이 서간을 썼습니다.

바오로는 신자들의 화목과 일치 문제를 걱정하며,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신도들이 되라고 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 찬가’

(2,6-11)를 제시하며,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오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유다교의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이단으로 경고합니다.

구성과 내용

필리피 교인들께 감사와 겸손, 일치와 기쁨 등 그리스도인으로 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줍니다.

1. 인사와 자기 형편 소개(필리 1,1-26) 감옥에 갇힌 사도 바오로의 형편 안내
2. 훈화(필리 1,27-2,18) 믿음을 위한 투쟁, 일치와 겸손(그리스도 찬미가), 세상의 빛
3. 티모테오를 파견하며 에파프로디토스 (바오로를 돌보다 병이 난)도 함께 돌려보냄(필리 2,19-30).
4. 이단에 대한 경고와 권고(필리 3,1-4,9) 유다계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충실할 것 권고
5. 선물에 대한 감사와 끝인사(필리 4,10-23)

말씀 일치와 겸손(필리 2,1-13)

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



정을 나눈다면, ²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³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⁴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⁵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⁶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⁸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¹⁰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¹¹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¹²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¹³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늘 남보다 앞서 나가고, 하나라도 더 얻고, 늘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네 성정에 비추어 볼 때, 뒤처지고 나약한 형제들과 가족들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웬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형제나 동료처럼 느껴지기보다 적도 아닌데 경쟁자요 남처럼 여겨져 긴장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사랑과 안식을 꿈꾸는 가정,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직장, 일치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그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그 겸손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주님께 갚듯이 봉헌하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위의 2장 1-5절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의 권고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나눠 봅시다.
3. 위의 2장 6-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중에 내가 닮고 따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4. 내가 살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5.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촉구하십니까?

11.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필레몬서는 필리피서, 에페소서, 콜로새서와 더불어 옥중서간이라고 부릅니다. 바오로는 3차 전도여행 중인 55-57년경 필레몬에게서 도망쳐 온 노예 오네시모스를 에페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 더 데리고 있고 싶지만 그를 다시 그 주인(신자)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오로는 그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적인

관계로 받아들여 자유를 줄 것을 청합니다. 바오로는 이 서간에서 분명히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필레몬에게 성숙한 신앙과 애덕에 의한 선처를 기대합니다.

바오로는 노예의 지위와 관련해서 혁명적인 주장을 내세웁니다. 즉, “그래서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 1코린 12,13; 콜로 3,11 참조) 이렇게 철저한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그 사상과 반대되는 사회의 제도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바오로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고 봅니다. 2세기 초 노예 출신임을 뜻하는 이름인 ‘오네시모스’가 에페소의 주교가 되었고, 217년에는 노예 출신 갈리스토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노예를 속량하기도 하였고, 다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교적인 사회활동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는 자유와 친교의 기쁜 소식은 공리공론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풍조의 변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강제와 폭력에 의한 사회제도의 전복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변혁을 기대합니다.

구성과 내용

필레몬서는 모두 25절로, 바오로가 쓴 서간 중 가장 짧습니다. 도망간 노예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바오로의 그리스도교적인 사회활동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인사말과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필레 1-7절).
2. 오네시모스를 위한 부탁과 끝인사(필레 8-25절)

말씀 자유로운 신앙생활(필레 8.10.12-17)

⁸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¹⁰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¹²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¹³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¹⁴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⁵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¹⁶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¹⁷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사람이 괜찮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을 꼭 잡아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선택이고, 무엇을 위한 일인지 되새겨 봅시다. 이 선택이 그리고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와 너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 진정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인지?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일을 모두가 다 좋다고 여기고 있는지? 내가 좋다고 권하는 일을 모두가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지켜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주님의 인도에 힘입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나 자신과 우리 모두의 장애를 걷어내며, 한 걸음씩 천천히 함께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신분이나 직책 또는 나보다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있습니까?
3.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스도교 가치관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었고,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사도 바오로는 55-56년경 3차 전도여행 때 에페소에서 갈라티아 교회 신자들에게, 구원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된다(의화)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흐르지 말고 복음의 정신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 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3,13) 우리의 충만하고 결정적인 해방은 그분 덕분입니다 (5,1,13).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를 의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이 커다란 사랑에 감화되어 우

리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5,6)

바오로는 2차 전도여행 때 (남부) 갈라티아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여행 때 육체적 질병 때문에 (북부) 갈라티아에 머무르게 된 것을 계기로 복음화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갈라티아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를 매우 관대하게 “하느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설교를 믿음으로 들어주었고, 세례로써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였고, 성령은 그들 가운데 기적적인 표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성과 내용

갈라티아서서는 모두 6장입니다.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조하는 유다계 반대자들에게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의화됨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복음의 길을 걸으라고 요구합니다.

1. 인사(갈라 1,1-10)
2. 복음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복음과 사도직-믿음과 율법(갈라 1,6-2,21)
3. 복음의 옹호: 율법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갈라 3,1-4,31)
4. 복음의 적용: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갈라 5,1-6,10)
5. 마지막 권고와 축복(갈라 6,11-18)



말씀 믿음으로 얻는 구원(갈라 2,16.19-20; 3,2; 5,13-14.16-26)

2¹⁶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¹⁹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²⁰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²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5¹³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¹⁴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¹⁶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¹⁷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¹⁸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¹⁹육의 행실은 자명합니

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²⁰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²¹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²²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²³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²⁴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²⁵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²⁶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이렇게 저렇게 머리 잘 써 구상하고, 방법 잘 선택한 후, 담당자들에게 통과만 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느님의 일은 업무의 성취가 아니라 형제들과의 일치와 친교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하느님 찬미를 통해 하느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화가 선물이듯이!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써 자유로워졌습니까?
3. 갈라티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13.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네로 황제 통치 하의 로마 종교는 태양신교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예로 끌려오거나 무역을 하기 위해 로마에 와서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며 헌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10-11,41을 보면, 로마에 거주하는 삼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바오로가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다계와 이방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방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둘 사이에 자주 분란이 있었습니다(로마 14-15장).

바오로는 57-58년경 모금 계획이 완성된 후, 에페소를 떠나 트로아스(2코린 2,12)와 마케도니아(2코린 12,14)를 거쳐 코린토로 와서(2코린 9,4) 삼 개월 동안 머물면서(사도 20,3)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참조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자비로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데, 인간은 율법 준행에 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의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실현하며 죄를 이기고 부활한 생명을 누리도록 요청합니다.

구성과 내용

로마서는 모두 16장입니다. 율법 중심의 유다교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된다는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강조하고,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을 권고합니다.

1. 머리말(로마 1,1-17)
2. 믿음으로 얻는 구원(로마 1,18-8,39)
3. 하느님의 선택과 구원(로마 9,1-11,39)
4.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로마 12,1-15,13) 사랑은 율법의 완성
5. 맺음말(15,14-16,27)

말씀 죄악으로부터의 해방(로마 7,15-20; 8, 20-21.24-28.39)

7¹⁵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¹⁶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¹⁷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¹⁸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¹⁹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²⁰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8²⁰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²¹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²⁴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²⁵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²⁶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²⁷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²⁸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³⁹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어릴 때부터 주님께 많은 것을 청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목 그리고 나의 꿈과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들, 평화, 민주주의, 민족의 일치와 국토의 통일…….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평생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겠다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우리 노력의 결실을 맺어주실 분이 주님이시기에 더욱 더 간절히 믿으며 청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거나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해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질병처럼 굳어진 좋지 않은 습관이나 이루기 힘든 평생의 숙제가 있습니까?
3.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4.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 느끼십니까?

14.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바오로가 에페소에 머물며 선교하는 동안(50-60년)에 그의 협력자 에파프라스가 콜로새에서 선교했습니다. 콜로새 공동체는 유다계와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자는 80-95년경(또는 61-63년경) 이후 콜로새 공동체가 지진

등의 위협과 체제와 질서의 붕괴와 자신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평가절하에 대한 두려움(1,15-20)으로, 영적인 것, 천상 존재 즉 천사에 대한 유다교식 믿음이 강하게 대두되고 (콜로 2,8.10.15.20; 1,16 참조) 유다계 음식물 규정(2,20-23) 요구 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그리스도론적인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집필했습니다(2,12).

콜로새서의 그리스도론은 곧바로 구원론으



로 연결되어, 우주론적이며 세계 내적인 그리스도 이해는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 구원론”으로 귀결됩니다(3,1-5; 4,6 참조). 그리고 신학 전개와 기본 틀과 방향 및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관을 펼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화되며 그분 안에서만 충분한 의미를 띠는다고 말합니다(1,17;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등 참조). 콜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우주론 그리고 윤리신학에 영향을 끼칩니다. 콜로 1,15의 “모든 피조물의 만이”라는 표현은 훗날 그리스도의 선재사상을 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콜로새서는 화해를 가르칩니다. 콜로 1,16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는 말씀과 1,18에서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곧 우주적·지상적 영역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현된 화해에(1,20) 한몫 차지한다는 사고의 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과 내용

콜로새서는 모두 4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신비가 장엄하게 펼쳐지며,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새로운 삶이 힘 있게 제시됩니다.

1. 머리말(콜로 1,1-14)
2. 그리스도 찬가(콜로 1,15-2,5)
3.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콜로 2,6-4,6)
4. 맺음말(콜로 4,7-4,18)

말씀 그리스도 찬가(콜로 1,15-20)

- 1¹⁵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이십니다.
- 16¹⁶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17¹⁷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 18¹⁸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맏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 19¹⁹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 20²⁰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한동안은 보고 싶더니, 막상 보고나니 티격태격 부담스러워지기
까지 합니다. 친우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아쉬운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존재이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
습니다. 부담스럽고 힘겹고 버거운 형제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화
해하고 싶습니다. 나의 평화로운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나라
를 향한 완성을 위하여.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세례 이후 내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면에
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3.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
엇입니까?
4.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제일 먼저 취해
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 콜로새서 저자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
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3,17)라고 하였는데, 콜로새 저자의 말을 따라 오늘 내가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
하겠습니까?

15.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에페소서는 90년대 초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교회들에 보내졌던 일종의 회람서간으로 추정됩니다. 저자는 그리스계 유다교 출신으로 사도 바오로의 이름을 빌어 이방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이방계와 유다계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인간”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묵은 인간을 벗고 새 인간을 입었던” 세례 때의 자세로 살아, “하느님의 생명으로 부터 제외”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에페소서는 필리피서,

콜로새서, 필레몬서와 함께 전통적으로 옥중서간 또는 수인서간이라고 불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회의 관심사도 변하였습니다. 의화론에서 종전의 “무상으로 주어진 종말론적 사건”이란 의미의 “디카이오쉬네”(義)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여러 덕행들 중 윤리적 덕행으로 언급됩니다(참조 4,24; 5,9; 6,14). 종말, 즉 “파루시아”(재림)에 대한 기대는 느슨해졌고, 그리스도는 ‘머리’로 강조되며, 전에는 십자가와 관련되었던(1코린 2,1-10)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주제가 여기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일치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3,4; 참조 콜로 1,26).

에페소서의 주관심사인 교회는 개별 지역교회에서 보편(세계)교회로 확장되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느님의 “신비”가 계시되는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출발점이자 전체생활과 그 직무들이 지향하는 목표이기에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 나가도록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은 계속적인 쇄신으로 새 인간을 입으며(4,22.24), 친절, 자비, 용서(4,32 참조), 사랑과 자기 자신을 내어줌(5,2) 등의 사랑으로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모방)”(4,31-5,2)이라고 초대하며, “어둠과 빛”의 대조(5,6-14)를 비유 삼아 늘 조심하여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거닐도록 권고하며,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자신의 삶으로 봉헌하도록 합니다(5,18-20).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사랑에 바탕을 둔 가정 의무항목들(5,21-6,9)이 독특합니다.



구성과 내용

1.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과 영적 축복(에페 1,1-2,10)
2. 그리스도와 의 일치(에페 2,11-3,21)
3. 새 생활의 규범(에페 4,1-6,20)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에페 2,7-10,14-16,20-22)

2⁷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⁸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⁹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¹⁰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¹⁴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¹⁵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¹⁶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²⁰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님께서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²¹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²²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가끔 교회에서 내려오는 요구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한 몸 살기도 어려운데 이것저것 하라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다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채우려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다는 불평마저 합니다. 시키기 전에 찾아서 하지는 못할망정 좋은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 권한 것마저 불평하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내게도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공동체의 유익보다 나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찾으려 하니 주님과 교회에 송구할 뿐입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주님께서 자비롭게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들의 분란을 씻어주고 일치시켜 주십니까?
3. 주님께서서는 평화를 이루는 길을 용서로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까?
4.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사랑에 바탕을 둔 가정 의무항목들(5,21-6,9)을 읽고 나눔시다.

16.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히브리서는 중재자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와 실천해야 할 교훈을 알려주는 살아있고 힘찬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사도시대 다음(제2) 세대에 속하는 유다계 신자로서, 바오로의 영향을 받은 제자 그룹이나 공동체에 속했으며 티모테오와도 친분이 있으며, 성경과 초대교회의 전례 및 신앙고백 전승 등을 잘 알고, 사목 경험과 열성을 겸비한 교회 교직자로 80-90년대에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추정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

(5,1-5)하시는 대사제이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나약함, 시험, 고통 등을 다 체험하신 분이기에 인간의 처지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고 동정하며 함께 아파하시며 대변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2,17-18).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는,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대사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지 않으시고(5,5)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없애 주셨으며 영원한 구원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9,11-14,27-28). 이렇게 고통과 복종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멜키체덱의 본을 따르는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5,6.10). 그분은 하느님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성실한 대사제이십니다(3,6).

그분께서는 이제 영원한 천상의 대사제이자(7,24) 새 계약의 중재자로서(9,15)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1,3). 그리고 항상 살아계시면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된 지성소인 하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중재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7,25).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부여해주셨는지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10,26)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여, 희망 속에 살아가며(11,1-2), 실생활에서 실천합니다. 믿음을 굳게 간직하려면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하느님께서 자녀들에게 보여 주시는 사랑의 표지인(12,6-7) 고통과 환난에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12,5), 믿음으로 어려움을 인내로이 극복하며(12,5-7), 꾸준히 사랑과 선행을 실천합니다(6,10; 10,25; 13,1.16).



구성과 내용

히브리서는 모두 13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사제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해 말합니다.

1.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사제 그리스도(히브 1,1-4,13)
2. 새로운 계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제사(히브 4,14-10,19)
3. 믿음과 시련 속의 인내(히브 11,1-13,25)

말씀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히브 4,14-5,10)

4¹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¹⁵우리에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¹⁶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5¹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²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³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⁴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⁵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⁶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⁷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예수님께서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¹⁰하느님에게서 멜키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늘 누군가의 덕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일가친척,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이웃사촌들, 은인들과 후원회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죄를 거듭 용서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예수님 은총의 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과 덕을 베풀어주신 어른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작은 덕이라도 베풀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지나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렵 곳이나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받아들이니까?

17. 야고보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야고보서는 60년대 전후 그리스어에 능통한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교회 내에서 신자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고(1,27; 2,15-16.25), 그리스도교를 철학적인 가르침으로만 이해하는 영지주의적 신자들(2,14-26)과 당파를 짓고 남을 가르치려는 교만한 신자들에게 말씀의 실천을 당부하면서(1,22-25.27; 3,13) ‘홀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보낸 신앙생활에 관한 훈계입니다.

저자는 구약의 청빈사상을 이어받아 가난한 이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여기고, 가난한 이들에게 각별히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2,2-4와 2,15-16의 실례와 1,27의 훈계), 복음선포와 교리교수를 기본전제로 삼고, 신도들이 이미 배우고 익힌 신앙에 상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관념적인 신앙태도를 경고하고(1,19-25; 2,14-26; 3,13 등),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1,26; 3,1-12; 4,11-12).

유다교의 지혜문학과 헬레니즘의 윤리사상을 다각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세말을 고대할 것과(1,12; 5,7-9) 그로 인한 인내심(1,2-4.12; 5,7-11)과 온순함과 화목과 겸손함(3,13-4,2.6.10). 맹세의 금지(5,12), 기도의 중요성(1,5-8; 5,13-18)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구성과 내용

야고보서는 모두 5장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와 말의 중요함, 믿음과 행함의 관계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알려줍니다.

1. 믿음에 따른 시련과 유혹(야고 1,1-1,18)
2.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실천(야고 1,19-2,26)
3. 겸손과 지혜(야고 3,1-4,17)
4. 훈계와 권고(야고 5,1-5,20)



말씀 참된 신앙생활(야고 1,21-22; 2,14-26)

1 ²¹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²²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 ¹⁴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¹⁵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¹⁶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¹⁷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¹⁸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¹⁹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떨니다. ²⁰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²¹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사약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²²그대도 보드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²³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

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²⁴여러분도 보드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²⁵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²⁶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아픔들, 전쟁과 기아, 사건 사고 등이 하도 많아서 점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주 심각하고 직접 내게 피부로 와 닿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듣고만 지나칩니다. 누구나 한 두 개의 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내 것도 아닌 것을 그냥 보낼 뿐 내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를 보내고 내 마음과 관심은 따로 두고 사는가 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주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현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실현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내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18. 베드로의 서간 1, 2

집필 동기와 목적

베드로서의 저자(실바누스?)는 소아시아 지역의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다가 갖은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도록(4,12) “격려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기”(5,12ㄴ)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1서는 65년 네로치하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이나, 81-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이전에 썼다고 추정하고, 2서는 90년대 쓴 유다서를 바탕으로(유다 6-7 = 2베드 2,4.6; 유다 8-9 = 2베드 2,10-11; 유다 11-12 = 2베드 2,15; 유다 17-18 = 2베드 3,1-4) 100-125년 사이에 거짓교사들을 경고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강조한 공동서간입니다.

구성과 내용

1. 베드로 1서

베드로 1서는 모두 5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살아 있는 돌’ 이신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살아나가도록 격려합니다.

- 1)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향한 희망(1베드 1,1-2,10)
- 2)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름(1베드 2,11-5,14).

2. 베드로 2서

베드로 2서는 모두 3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단자들의 유혹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점과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 1) 그리스도인의 소명(2베드 1,1-21)
- 2)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2베드 2,1-22)
- 3) 주님의 재림(2베드 3,1-18)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3,15)

말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1베드 1,6-9; 2,5; 2베드 3,8-15)

1⁶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⁹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⁵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3⁸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⁹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¹⁰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¹¹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¹²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¹³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¹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

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¹⁵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써 보낸 바와 같습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어느 겨울인가 버스를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추운 겨울에 내 외투를 달라면 주어야겠지. 누군가 이 추운 겨울에 버스비를 달라 하면 주어야겠지. 그러면 난 그 추운 겨울에 외투 하나 없이 터덜터덜 찬바람 속으로 걸어가야겠지…….’ 무한경쟁 사회에서 남에게 양보하고 대신 희생하면 웬지 처지고 낙오될 것 같은 조바심으로 악착같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복음을 따르는 새롭고 신선하며 보람찬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 내 일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있도록 노력합니까? 거룩한 돌로세!

20. 유다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90년대 쯤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이방계 그리스도 교회 안의 이단자들을 공박하는 한편, 신도들이 이런 이단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정통신앙을 충실히 지키도록 권고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공박하는 이단자들은 “몰래 숨어들어온 자들”(4절)로서 다른 지역교회의 방랑설교자들(갈라 2,4; 2코린 11,4; 필리 3,2; 2티모 3,6 참조)이며, 그리스도 신앙을 자기들의 철학사상과 혼합시켜서 그릇된 교설을 가르쳤습니다(1요한 4,1; 2요한 7,10; 3요한 9절 참조). 이들이 “사랑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했으니(12절)

아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명을 지키지 않던 이단자들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 (19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20절; 로마 8,15.26; 1코린 12,3; 갈라 4,6; 에페 6,18 참조).

저자는 천사들을 욕하는 이단자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 미카엘 대천사도 사탄을 욕하지 않았다는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을 인용하며(9절), 별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즈카 3,2)고 씁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과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탁하라고 권고합니다(21절).

구성과 내용

유다서는 모두 25절로 된 짧은 서간입니다. ‘반 이단적 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짓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1. 거짓교사들을 향한 비판(유다 1-16)
2. 권고와 찬송(유다 17-25)

말씀 거짓교사들 앞에서(유다 4.4-10.17-23절)

4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



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⁵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⁶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⁷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욕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⁸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⁹그러나 미카엘 대천사도 모세의 주검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¹⁰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 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

¹⁷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¹⁸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¹⁹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²⁰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²¹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²²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²³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먹고 살고 활동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무엇을 어떻게 더 채워야 한단 말인가? 그 어느 누가,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답답함과 내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복음을 실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에게 헌신하며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공동체의 사정보다 나의 형편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3. 사회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21. 요한의 서간 1, 2, 3

집필 동기와 목적

요한계 문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애, 죽음, 부활 전부를 목격한 증인입니다(요한 15,27; 19,35; 21,24; 1요한 1,1-3; 4,14).

55-57년경 사도 바오로가 아시아의 수도 에페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전도했고, 90년경 요한 복음 1-20장이 쓰였고, 추후에 21장이 덧붙여지며, 90-100년경에는 에페소와 아시아 교회가 요한계 교회로 변합니다.

이단자들은 초기 영지주의의 이분법적 사조에 물들어, 인성을 지닌 예수님과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로 양분했지만, 교회는 참 인간이자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현세

구원을 강조하며 미래(종말)구원을 부정했지만,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희망으로 오늘을 살도록 강조합니다.

요한계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원무궁한 선재자로서(요한 1,1,30; 8,58; 17,5), 천지 창조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요한 1,3), 하늘로부터 내려와(요한 3,13,31) 사람이 되어(요한 1,14) 하느님 아버지를 알려 주셨다(요한 1,18)는 (하강과 상승) 그리스도론을 발전시켜 예수님을 하느님과 동등한 분(요한 5,18; 10,30-33; 14,9; 19,7)으로, 하느님(요한 1,1,18; 20,28; 참조 1요한 5,20)으로 신봉했습니다. 이 신앙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이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한 위격(성자위격)안에 혼합됨도 분리됨도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교의를 확정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에서는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을 용납할 수 없었고,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요한 5,18; 8,58-59; 10,30-33; 19,7), 85년경 18조 저주 기도문 제12조에 나자렛 사람들(=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에 포함시켜, 회당에서 추방했습니다(요한 9,22; 12,42; 16,2).

구성과 내용

1. 요한1서는 모두 5장입니다. 이단자들을 경고하며, 빛과 어둠, 죄와 생명, 미움과 사랑 등 참된 신앙생활을 제시합니다.

1) 하느님은 빛이시다(1요한 1,1-2,28).

2) 하느님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1요한 2,29-4,6)

3)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7-5,21).



2. 요한2서와 3서는 각각 13절, 15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간입니다. 예수님의 육화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와 사랑과 선을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자세 등을 제시합니다.

1) 서로 사랑하라(2요한 1-13절).

2) 악을 멀리하고 선을 본받으시오(3요한 1-15절).

말씀 사랑과 믿음(1요한 4,7-5,5)

4⁷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⁸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⁹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¹⁰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¹¹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¹²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¹³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¹⁴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¹⁵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¹⁶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¹⁷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¹⁸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¹⁹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²⁰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²¹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지금까지 제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 고비마다 저를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몸으로 믿고 삽니까?
3.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4. 요한 묵시록

집필 동기와 목적

요한은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영상으로 보고 편지를 썼는데(1,11), 그가 본 일곱 황금 등경은 소아시아(현 터키) 서남부에 있던 일곱 교회(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리델피아, 라오디케이아)를 상징합니다.

요한 묵시록은 교회 내적으로 니콜라오스파(2,6 참조)가 신앙을 흐리게 했고(2,14 참조), 열성을 잃어가고(2,4 참조), 사랑이 식고(3,2 참조), 외적으로 유대인들의 적개심(2,8-10)과 로마 황제의

식을 강요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6,9-11; 17,6)에서 순교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썼습니다.

묵시록에서 하느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옥좌에 앉아 통치하시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느님의 모든 특권을 다 받으시고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살아 계시며, 주님 손으로 교회를 잡고 힘차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시며(1-3장), 모든 악의 세력을 교회와 함께 쳐 이기시며 교회가 완전한 신부가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4-21장).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옥좌에 오르셔서 부활로 얻은 개인적인 승리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실현시키십니다. 박해를 야기하고 신자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용 또는 사탄은 곧(6,10; 12,12; 30,3) 패합니다. 마지막 세상 심판은 시작되었고, 행복의 표상인 천상도시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미 시작했으며, 곧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이들을 받아 주십니다.

구성과 내용

요한 묵시록은 모두 22장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희망으로 격려합니다.

1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간(묵시 1,1-3,22)

2부 환시



1. 첫째 환시(4-11장)

1) 어린양과 일곱 개의 봉인(묵시 4,1-8.5)

2) 일곱 나팔(묵시 8,6-11,19)

2. 둘째 환시(12-22장)

1) 천상의 음모와 투쟁: 표징-여인과 용, 아기, 두 짐승(묵시 12,1-14,20)

2) 마지막 재앙과 바빌론의 패망: 일곱 대접과 그리스도의 승리(묵시 15,1-19,10)

3) 새 하늘과 새 땅: 천상 예루살렘(묵시 19,11-22,21)

말씀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6; 22,17.20-21)

21 ¹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²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³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⁴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⁵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⁶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 주겠다...”

22 ¹⁷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²⁰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²¹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풀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3.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왜?

참조1.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상징

숫 자	동 물
• 1/4, 1/3: 일시적인, 불완전한, 부분적인(8,7 이하) • 1/2: 큰일을 준비, 대비하는 순간(8,1 참조) • 2: 지상의 증인(11,3 참조) • 3: 충만함, 신의 완전성(4,8 '거룩하시다'의 반복 횟수 참조) • 3 1/2: 완전(7)의 반, 환난의 기간, 일시적 상황(11,9 참조) • 4: 온 세상, 모든 창조물(7,1 참조) • 5: 제한된 재앙의 기간(메뚜기의 생존기간-9,5,7-11 참조) • 6: 완전한 수 일곱에 하나 모자라는 수, 불완전의 상징 • 7: 완전함, 완성, 충만(1,11; 5,1 참조) • 10: 완성, 충만(12,3; 13,1; 17,12 참조) • 12: 완전한 수,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들 시사,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된 숫자(21,12-14 참조) • 24: 12+12=24 하느님 백성의 상징(4,10) • 42(달수): 짧은 기간(11,2 참조), 1,260일과 3년 반으로 완전수 7의 반으로 불완전(13,5) 의미	•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5,6 참조) • 군대의 침략(9,13-20 참조) • 용: 사탄(12,3 참조) • 짐승: '첫째 짐승'(13,1 이하)은 로마 제국, '둘째 짐승'(13,18 참조)은 로마 황제로 나타냄 • 개구리: 더러운 악령(16,13 참조) • 메뚜기: 불신자에게 주는 악마적 고통(9,3 참조) • 생물(네 마리의 생물): 창조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위대하심(4,6-8 참조)
	물체, 사물, 기타
	• 등경: 교회(1,12 참조) • 별: 사자, 천사(1,20 참조)

숫 자	물체, 사물, 기타
• 666: 불완전한 수 6의 세 번 반복으로 가장 나쁜 수(13,18 참조), 적그리스도의 수, 짐승의 수, 즉, 네로황제 - N(50)E(6)R(500)O(50)=666. • 888: 예수 그리스도(완전한 7+1) • 1000: 많음을 뜻함, 충분한 기간(20,2-7) • 144,000: 구원받은 자들의 수(7,4; 14,1 참조-구약 12지파 * 신약 12사도 * 1,000완전의 수) 하느님 백성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한다.	• 왕관: 왕권(4,4; 12,3 참조) • 눈: 지식, 일곱 개의 눈은 무한한 지식을 표상함(5,6 참조). • 머리들: 황제와 왕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17,7-14 참조) • 보석: 대단한 아름다움(4,3; 17,7; 21,18이하). • 종려나무 가지: 개선, 승리(7,9 참조) • 긴 옷: 사제직(1,13; 6,11 참조) • 칼: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심판(1,16; 2,12; 19,5 참조), 참화를 나타내기도 함(6,3-4 참조). • 옥좌: 왕의 권의(4,2; 18-7 참조) • 나팔: 명령하는 하느님의 음성(8,2 이하 참조) • 날개: 기동성(4,6-8 참조), 하느님의 뜻이 수행되는 그 신속성과 하느님의 무소부재성 두 가지를 함께 시사함.
색 깔	
• 흰색: 승리의 기쁨, 순결, 천국(1,14; 7,9; 14,14; 19,11 참조) • 검은색: 죽음, 기근, 재앙, 질병(6,5 참조) • 푸른색: 죽음, 기근, 재앙, 질병(9,17 참조) • 붉은색: 전쟁, 폭력, 피흘림(6,4; 12,3 참조) • 금색: 왕의 영화(1,13; 4,4 참조) • 녹색(병적인 창백한 녹색): 재앙, 그로 인한 질병(6,8 참조) • 주황(진홍)색: 방탕한 사치, 풍요(17,3-4 참조)	

참조2. 일곱 교회에 대한 평가(묵시 2,1-3,22)

에페소 교회(2,1-7)		스미르나 교회(2,8-11)
칭찬	네가 한 수고, 인내, 사이비 사도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너는 환난과 궁핍을 겪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했다.
책망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렸다.	없음.
경고	내가 가서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라.
약속	나는 너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생명의 화관을 주고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게 해주겠다.
페르가몬 교회(2,12-17)		티아티라 교회(2,18-29)
칭찬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너의 일, 사랑, 믿음, 봉사,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책망	너희 중에 발라암을 따르는 자가 있다.	너는 이제벨을 용인하고 있다.
경고	뉘우쳐라.	나는...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약속	감추어둔 만나와 새로운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겠다.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와 셋별을 주겠다.

사르디스 교회(3,1-6)		필라델피아 교회(3,7-13)
칭찬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잘 지켰다.
책망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없음.
경고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약속	흰옷을 입히고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
라오디케이아 교회(3,14-22)		
칭찬	없음.	
책망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경고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약속	나와 함께 내 어좌에 앉게 해주겠다.	

25.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1, 2

집필 동기와 목적

100년경 바오로나 그를 존경하는 이가 에페소 지역에서 이 사목 서간을 썼다고 봅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와 둘째 서간 그리고 티토에게 보낸 서간은 한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들에게 교회직 분에 관해 지시하며, 교회의 제도와 조직, 이단 단죄 등 사목문제를 다룬 공한들로서 18세기부터 사목서간이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습니다. 사목서간은 초창기 교회의 제도와 교회론적인 가르침과 그리스도론적인 가르침에 관한 오래된 전승자료도 알려줍니다(1티모 3,16; 6,15.16; 2티모 1,8-10; 2,8-13; 티토 3,4-7).

저자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건전한 가르침”(1티모 1,10)으로 여기고 충실히 지키려 했습니다(1티모 6,20; 2티모 1,12-14).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1티모 2,5,6), 우리의 구원자(티토 1,4; 3,6), 곧 주님이십니다. 하느님도 “주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인간의 구원자로 이해합니다(1티모 4,10). 바오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내림(parusia)이란 단어를 쓰지만, 저자는 시현(示現), 즉 에피파니아(epi-phania)란 단어를 써서 사람이 되신 것(육화)도 뜻합니다(2티모 1,10; 참조 티토 2,11; 3,4). 바오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사건으로 보았지만, 저자는 예수님의 지상생활 전체를 구원사건으로 보고(티토 2,11; 3,4), 믿음을 신앙행위가 아니라, 신앙 내용으로 봅니다(1티모 3,9; 2티모 3,8).

감독자, 장로, 봉사자로 구성된 교직자들은 특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뒤, 안수를 통해 직분을 수여받고 이단자를 배격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지키는 등 교계제도가 이미 자리잡혔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예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교계제도에 흡수되었고, 자유로웠던 은사현상은 쇠퇴했습니다.

구성과 내용

티모테오 1서는 6장, 2서는 4장입니다. 사목 직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교회의 직제별로 사람들을 이끌고 성장시켜야 될 사목자의 자세를 체계적으로 세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1. 머리말과 교회 규범(1티모 1,1-3,16)



2. 사목 제안과 지침(1티모 4,1-6,20)

3. 믿음과 복음(2티모 1,1-18)

4. 사목 제언(2티모 2,1-4,22)

말씀 지도자의 자격(1티모 3,2-13)

3²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³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⁵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⁶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⁷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⁸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⁹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¹⁰또 그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경우에만 봉사직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¹¹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헐뜯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¹²봉사

자들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¹³사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못해요, 안 해요...” 오늘 우리의 자화상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공통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채우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되돌려 드리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채우셔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쓰십시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교회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를 실 생활에 비춰 나눔시다.
3. 내가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대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27. 티토에게 보낸 서간

집필 동기와 목적

100년경 바오로나 그를 존경하는 이가 에페소 지역에서 이 사목서간을 썼다고 봅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와 둘째 서간 그리고 티토에게 보낸 서간은 한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들에게 교회직분에 관해 지시하며, 교회의 제도와 조직, 이단 단죄 등 사목문제를 다룬 공한들로서 18세기부터 사목서간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목서간은 초창기 교회의 제도와 교회론적인 가르침과 그리스도론적인 가르침에 관한 오래된 전승자료도 알려줍니다(1티모 3,16; 6,15.16; 2티모 1,8-10; 2,8-13; 티토 3,4-7).



저자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건전한 가르침”(1티모 1,10)으로 여기고 충실히 지키려 했습니다(1티모 6,20; 2티모 1,12-14).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1티모 2,5.6), 우리의 구원자(티토 1,4; 3,6), 곧 주님이십니다. 하느님도 “주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인간의 구원자로 이해합니다(1티모 4,10). 바오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내림(parusia)이란 단어를 쓰지만, 저자는 시현(示現), 즉 에피파니아(epi-phania)란 단어를 써서 사람이 되신 것(육화)도 뜻합니다(2티모 1,10; 참조 티토 2,11; 3,4). 바오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사건으로 보았지만, 저자는 예수님의 지상생활 전체를 구원사건으로 보고(티토 2,11; 3,4), 믿음을 신앙행위가 아니라, 신앙 내용으로 봅니다(1티모 3,9; 2티모 3,8).

감독자, 장로, 봉사자로 구성된 교직자들은 특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뒤, 안수를 통해 직분을 수여받고 이단자를 배격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지키는 등 교계제도가 이미 자리잡혔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예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교계제도에 흡수되었고, 자유로웠던 은사현상은 쇠퇴했습니다.

구성과 내용

티토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목하는 지도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목에 협조하는 이들을 비롯하여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 젊은이 등 여러 신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권고합니다.

1. 인사와 티토의 사명(티토 1,1-16)

2. 교회 규범과 권고(티토 2,1-3,15)

말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지시(티토 2,1-8; 3,2-7)

2 ¹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²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³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⁴그래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⁵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⁶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⁷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⁸트집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3 ²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를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³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⁴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⁵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⁶이 성령을 하

느님께서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⁷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어떤 때는 겸손하게 나가고 상대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자세를 갖출 양이면, 이쪽에서 무엇인가 아쉽거나 마치 잘못된 것이라도 있어서 구걸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 영·육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여유를, 사랑을, 자비를 베풀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겸손과 존중이 이해관계 속에서 한낱 숫자놀음의 연장으로만 보일 뿐인가 봅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셨던 엄청난 사랑에 보답하라는 의미에서라도 나의 본분과 인격의 완성을 향해 겸손과 존중의 길을 걸어갑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내가 만난 좋은 봉사자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3. 나는 어떤 선행의 본보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일일 성경 피정

피정 일정표

시 각	내 용
09:30	접수와 피정 안내
10:00	묵상1 - 하느님 사랑 인식과 영적 여정기 작성
11:00	나눔1
12:00	식사
12:30	레크리에이션
13:00	나눔2
14:00	묵상2 - 소명 인식
15:00	휴식
15:30	묵상3 - 계획서 및 봉헌문 작성
16:30	나눔3
17:30	고해성사와 미사 준비
19:00	파견미사

1.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청하는 기도’와 ‘주제 말씀과 묵상’에 대한 소개 강의를 합니다.
2. ‘나눔’은 그동안 함께해 왔던 ‘나눔조’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고해성사와 미사 준비’ 시간에는 가능하면 면담이나 고해성사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바치는 ‘성령을 청하는 기도’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 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묵상1 - 하느님 사랑 인식과 영적 여정기 작성

말씀1 이스라엘의 구원(이사 43,1-7)

43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²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³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⁴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⁵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 오리라.

⁶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 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너라.

⁷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묵상 주제1

영적 여정기(spiritual history) 작성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오
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묵상합니다.

1. 먼저 자기 인생의 굹직굹직한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기에게 좋았거나 슬펐던 순간들, 충격적이었던 순간들, 자기를
변화시킨 순간들
2.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되새깁니다.
3. 각 사건들과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오
셨는지 되새깁니다.
4.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정을
드립니다.

나눔1

자기가 작성한 위의 ‘영적 여정기’를 나눕니다.

나누면서, 혹시 자기 개인의 비밀스런 부분이나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묵상2 - 소명

나눔2

1. 이 과정을 밟으면서 자기에게 힘을 준 말씀이나 기억나는 말씀을 나눕시다.
2. 이 과정을 밟으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들과 대처했던 방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눕시다.

말씀2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마르 1,16-20)

1 ¹⁶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¹⁷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¹⁸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¹⁹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²⁰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묵상 주제2

1. 내 주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떠올립니다.
2.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새겨봅니다.
3.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들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묵상3 - 계획서 및 봉헌문 작성

말씀3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로마 12,1-21)

12 ¹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²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³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⁴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⁵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⁶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⁷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⁸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⁹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¹⁰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¹¹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¹²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¹³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¹⁴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¹⁵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¹⁶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¹⁷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¹⁸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¹⁹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²⁰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²¹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묵상 주제3

1. 주님의 충실한 사도가 되어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듭니다.
2. 또는 그 계획서나 결심을 봉헌문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눔3

함께 나누면서 한 사람이 끝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발표한 사람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기도를 바치는 형식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부록 1

신약 성경 연대기

연 대	사 건
기원전 7~4년	예수 아기 탄생/ 세례자 요한의 출생
기원후 5~10년	터키의 타르수스에서 바오로 출생
기원후 27년	요한 세례자의 활동, 예수의 세례
30년	4월 7일(니산 달 14일) 골고타에서 예수의 사형, 부활, 승천
30년	5월 성령강림/ 예루살렘 교회 창립(사도행전 2장)
33(?)년	사도 바오로의 회심(또는 30~37년)
36~37(?)년	스테파노의 순교(사도 7장), 유다계 그리스도교인 시리아로 피신(사도 8장), 바오로의 회심(사도 9장 다마스쿠스) - 빌라도의 로마 소환
39년경	바오로의 다마스쿠스 선교와 탈출 및 예루살렘 교회 방문(사도 9,19-30)
43~44년경	바르나바의 초대로 바오로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목함(사도 11,19-30).
45~49년경	사도 바오로의 1차 선교 여행(사도 13-14장)
49년	예루살렘 사도회의(공의회)에 바오로와 바르나바 참석(사도 15장)
50~52년	사도 바오로의 2차 선교 여행(사도 15,36-18,22), 코린토에서 테살로니카 1서 집필
53~58년	사도 바오로의 3차 선교 여행(사도 18,23-21,16)
50~60년대	'예수님 어록' (Q어록)
54~57년	3차 선교 여행 중 갈라티아 교회들을 돌러보고 에페소에서 27개월 머무름(사도 19,8-10). 갈라티아서와 코린토 1서를 썼고, 에페소 감옥에서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를 집필. 석방 후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코린토 2서를 집필(사도 20,1)
57년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필리피에서 해방절을 지냄. 트로아스, 밀레토스, 티로, 프톨레마이스, 총독부 카이사리아를 거쳐 오순절 무렵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성전에서 체포됨(사도 21,27-36).

연 대	사 건
58~60년	바오로가 미결수로 카이사리아에서 옥고를 치름.
60년대 전후	야고보서 집필
60년대	바오로가 페스투스 총독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황제에게 상소함(사도 25-26장).
60년 가을~61년 초	바오로가 미결수로 카이사리아에서 로마로 압송됨(사도 27,1-28,15).
61~63년	바오로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임(사도 28,16-31).
64년	7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내고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함(68년까지 처형).
64~68년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순교
66~74년	제1차 유다 독립전쟁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60년대 말~70년	마르코 복음 집필
80~90년대	마태오 복음 집필(히브리어나 아람어)
80~90년대	루카 복음 집필
80~95년	사도행전 집필, 야고보서(또는 62), 콜로새(또는 61-63), 베드로 1서(또는 64), 히브리서(또는 60년대) 집필 추정
90~100년	요한 복음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묵시록, 에페소서(또는 61-63) 집필 추정
95~100년	티토서, 티모테오 1, 2서(또는 65-67년)
100~150년	베드로 2서
300/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통일/ 그리스도교 인정 및 국교화

부록2

성경의 소제목과 장절

1. 마르코 복음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1,1-8), 세례를 받으시다(9-11),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12-13),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14-15),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16-20),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21-28),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29-31),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32-34),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35-39),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40-45).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2,1-12),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13-17), 단식 논쟁-새것과 헌 것(18-22),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23-28).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3,1-6),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7-12),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13-19), 예수님과 베엘제불(20-30), 예수님의 참가족(31-35).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4,1-9),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10-12),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13-20), 등불의 비유(21-25),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26-29), 겨자씨의 비유(30-32),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33-34), 풍랑을 가라앉히시다(35-41).

마귀들과 돼지 떼(5,1-20),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21-43).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6,1-6),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7-

13),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14-16), 세례자 요한의 죽음(17-29), 오천 명을 먹이시다(30-44), 물 위를 걸으시다(45-52), 겐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53-56).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7,1-23),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24-30),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31-37).

사천 명을 먹이시다(8,1-10), 바리사이드들이 표징을 요구하다(11-13), 바리사이드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14-21), 벳사이다의 눈먼 이를 고치시다(22-26),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27-30),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31-33),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34-38).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9,2-10), 엘리야의 재림(11-13),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14-29),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30-32), 가장 큰사람(33-37),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38-41),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42-48), 소금(49-50).

혼인과 이혼(10,1-12),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13-16),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17-27), 따름과 보상(28-31),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32-34), 출세와 섬김(35-45),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시다(46-52).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11,1-11),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12-14), 성전을 정화하시다(15-19), 말라 버린 무화과나무의 교훈(20-26),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27-33).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12,1-12),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13-17), 부활 논쟁(18-27), 가장 큰 계명(28-34),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35-37),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38-40), 가난한 과부의 헌금(41-44).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13,1-2), 재난의 시작(3-13), 가장 큰 재난(14-23),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24-27), 무화과나무의 교훈(28-31), 깨어 있어라(32-37).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14,1-2),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3-9),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10-11),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12-16),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17-21), 성찬례를 제정하시다(22-26),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27-31),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32-42), 잡히시다(43-50),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51-52),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53-64), 예수님을 조롱하다(65),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66-72).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15,1-5),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6-15),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16-20),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21-32), 숨을 거두시다(33-41), 묻히시다(42-47).

부활하시다(16,1-8),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9-11),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12-13),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14-18), 승천하시다(19), 마르코 복음서의 짧은 끝맺음(20).

2. 마태오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1,1-17),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18-25).

동방 박사들의 방문(2,1-12), 이집트로 피신하시다(13-15), 헤로테가

아기들을 학살하다(16-18), 이집트에서 돌아오시다(19-23).

세례자 요한의 설교(3,1-12), 세례를 받으시다(13-17).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4,1-11),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12-17),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18-22), 예수님과 군중(23-25).

참행복(5,3-12), 세상의 소금과 빛(13-16), 예수님과 율법(17-20), 화해하여라(21-26), 극기하여라(27-30),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31-32), 정직하여라(33-37), 폭력을 포기하여라(38-42), 원수를 사랑하여라(43-48).

올바른 자선(6,1-4), 올바른 기도(5-8), 주님의 기도(9-15), 올바른 단식(16-18),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19-21), 눈은 몸의 등불(22-23), 하느님이냐, 재물이냐(24),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25-34).

남을 심판하지 마라(7,1-5),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6),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7-11), 황금률(1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13-14),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15-20),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21-23), 내 말을 실행하여라(24-27), 청중의 반응(28-29).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8,1-4),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5-13),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14-15),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16-17), 예수님을 따르려면(18-22), 풍랑을 가라앉히시다(23-27), 마귀들과 돼지 떼(28-34).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9,1-8), 마태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9-13), 단식 논쟁-새것과 헌것(14-17), 야이로

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18-26),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27-31), 잘못하는 이를 고치시다(32-34),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35-38).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10,1-4), 열두 사도를 파견하시다(5-15), 박해를 각오하여라(16-25),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26-33),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34-36), 버림과 따름(37-39),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을 상(40-42).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11,2-6),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7-19),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20-24), 하느님 아버지과 아들(25-27), 내 명예를 메어라(28-30).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12,1-8),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9-14), 주님의 종 예수님(15-21), 예수님과 베엘제불(22-32), 말과 마음(33-37), 요나의 표징(38-42), 되돌아오는 악령(43-45), 예수님의 참가족(46-50).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13,1-9),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10-17),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18-23), 가라지의 비유(24-30), 겨자씨의 비유(31-32), 누룩의 비유(33),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34-35),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다(36-43),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44-46), 그물의 비유(47-50), 비유를 끝맺는 말씀(51-53),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54-58).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14,1-2), 세례자 요한의 죽음(3-12), 오천 명을 먹이시다(13-21), 물 위를 걸으시다(22-33), 겐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34-36).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15,1-20), 가나안 여자의 믿음(21-28),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29-31), 사천 명을 먹이시다(32-39).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다(16,1-4),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5-12),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13-20),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21-23),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24-28).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17,1-9), 엘리야의 재림(10-13),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다(14-21),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22-23), 성전 세를 바치시다(24-27).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18,1-5),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6-9),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10-11), 되찾은 양의 비유(12-14),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15-18),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19-20),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21-22), 매정한 종의 비유(23-35).

혼인과 이혼(19,1-9), 혼인과 독신(10-12),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13-15),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16-26), 따름과 보상(27-30).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20,1-16),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17-19), 출세와 섬김(20-28),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29-34).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21,1-11), 성전을 정화하시다(12-17),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18-22),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23-27), 두 아들의 비유(28-32),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33-46).

혼인 잔치의 비유(22,1-14),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15-22), 부활 논쟁(23-33), 가장 큰 계명(34-40),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41-46).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23,1-36),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37-39).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24,1-2), 재난의 시작(3-14), 가장 큰 재난(15-28),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29-31), 무화과나무의 교훈(32-35), 깨어 있어라(36-44),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45-51).

열 처녀의 비유(25,1-13), 탈렌트의 비유(14-30), 최후의 심판(31-46)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26,1-5),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6-13),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14-16),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17-19),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20-25), 성찬례를 제정하시다(26-30),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31-35),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36-46), 잡히시다(47-56),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57-66), 예수님을 조롱하다(67-68),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69-75).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다(27,1-2), 유다가 자살하다(3-10),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11-14),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15-26),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27-31),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32-44), 숨을 거두시다(45-56), 묻히시다(57-61),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다(62-66).

부활하시다(28,1-8),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9-10), 경비병들이 매수되다(11-15),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16-20).

3. 루카 복음서

머리말(1,1-4),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5-25), 예수님의 탄생 예고(26-38),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39-45), 마리아의 노래(46-56), 세례자 요한의 출생(57-66), 즈카르야의 노래(67-79), 요한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80).

예수님의 탄생(2,1-7),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다(8-14), 목자들이 예수님을 뵈다(15-20), 할례와 작명(21),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22-24),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25-39), 예수님의 유년시절(40), 예수님의 소년 시절(41-52).

세례자 요한의 설교(3,1-18), 요한이 옥에 갇히다(19-20), 세례를 받으시다(21-22), 예수님의 족보(23-38).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4,1-13),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14-15), 나자렛에서 회년을 선포하시다(16-30),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31-37),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38-39),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40-41),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42-44).

고기잡이 기적-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5,1-11),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12-16),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17-26),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27-32), 단식 논쟁-새것과 헌것(33-39).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6,1-5),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6-11),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12-16), 예수님과 군중(17-19), 참행복(20-23), 불행 선언(24-26), 원수

를 사랑하여라(27-36), 남을 심판하지 마라(37-42),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43-45), 내 말을 실행하여라(46-49).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7,1-10),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11-17),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18-23),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24-35),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36-50).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다(8,1-3),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4-8),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9-10),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11-15), 등불의 비유(16-18), 예수님의 참가족(19-21), 풍랑을 가라앉히시다(22-25), 마귀들과 돼지 떼(26-39),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40-56).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9,1-6),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7-9), 오천 명을 먹이시다(10-17),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18-21),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22),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23-27),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28-36),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 쫓으시다(37-43),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44-45), 가장 큰사람(46-48),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49-50),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51-56), 예수님을 따르려면(57-62).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시다(10,1-12),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13-16), 일흔두 제자가 돌아오다(17-20),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21-24), 가장 큰 계명(25-28),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29-37),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38-42).

주님의 기도(11,1-4), 끊임없이 간청하여라(5-8),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9-13), 예수님과 베엘제불(14-23), 되돌아오는 악령(24-26), 참행복(27-28), 요나의 표징(29-32), 눈은 몸의 등불(33-36),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시다(37-54).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12,1),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2-12), 탐욕을 조심하여라(13-15),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16-21),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22-32),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33-34), 깨어 있어라(35-40),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41-48), 불을 지르러 왔다(49-50), 분열을 일으켜 왔다(51-53), 시대를 알아보아라(54-56), 늦기 전에 화해하여라(57-59).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13,1-5),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6-9), 등 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시다(10-17), 겨자씨의 비유(18-19), 누룩의 비유(20-21), 구원과 멸망(22-30), 죽음에 직면하시는 예수님(31-33),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34-35).

수종을 앗는 이를 안식일에 고치시다(14,1-6), 끝자리에 앉아라(7-11),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12-14), 혼인 잔치의 비유(15-24), 버림과 따름(25-33), 맛을 잃은 소금(34-35).

되찾은 양의 비유(15,1-7), 되찾은 은전의 비유(8-10), 되찾은 아들의 비유(11-32).

약은 집사의 비유(16,1-8),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9-12), 하느님이냐, 재물이냐(13),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의 참모습

(14-15), 율법과 하느님의 나라(16-17),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18),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19-31).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17,1-3),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 하여라(4), 믿음의 힘(5-6), 겸손하게 섬겨라(7-10),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 주시다(11-19), 하느님 나라의 도래(20-21), 사람의 아들의 날(22-37).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18,1-8),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9-14),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15-17),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18-27), 따름과 보상(28-30),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31-34),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시다(35-43).

예수님과 자캐오(19,1-10), 미나의 비유(11-27),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28-40),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우시다(41-44), 성전을 정화하시다(45-48).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20,1-8),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9-19),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20-26), 부활 논쟁(27-40),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41-44),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45-47).

가난한 과부의 헌금(21,1-4),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5-6), 재난의 시작(7-19),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다(20-24),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25-28), 무화과나무의 교훈(29-33), 깨어 있어라(34-38).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22,1-2),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3-6),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7-13),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14-20),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21-23),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24-27),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다(28-30),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31-34),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35-38),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39-46), 잡히시다(47-53),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54-62), 예수님을 조롱하다(63-65),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67-71).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23,1-5), 헤로테 앞에 서시다(6-12),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13-25), 십자가에 못박히시다(26-43), 숨을 거두시다(44-49), 묻히시다(50-56).

부활하시다(24,1-12),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13-35),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36-49), 승천하시다(50-53).

4. 사도행전

머리말(1,1-5), 예수님의 승천(6-11), 기도하는 사도들(12-14), 마티아를 사도로 뽑다(15-26).

성령 강림(2,1-13),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14-36), 개종한 첫 사람들(37-41),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42-47).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다(3,1-10),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하다(11-26).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 의회에서 증언하다(4,1-22),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하다(23-31),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32-37).

하나니아스와 사피라(5,1-11),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다(12-16), 사

도들이 박해를 받다(17-42).

일곱 봉사자를 뽑다(6,1-7), 스테파노가 체포되다(8-15),
스테파노가 최고 의회에서 설교하다(7,1-53), 스테파노가 순교하다
(54-60).

교회가 박해를 받다(8,1-3),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다(4-25), 필
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26-40).

사울이 회심하다(9,1-18),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하
다(19-22), 사울이 피신하다(23-25),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26-31), 베드로가 중풍 병자를 고치다(32-35), 베드로
가 도르카스를 다시 살리다(36-43).

코르넬리우스가 환시를 보다(10,1-8), 베드로가 환시를 보다(9-16), 베드
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다(17-33),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의 집에서 설교하다(34-43),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
(44-48).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11,1-18), 안티오키아에 교회를
세우다(19-26),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다 지방의 신자들을 돕
다(27-30).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12,1-5),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다(6-19), 헤로데가 죽다(20-23), 바르나
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24-25).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13,1-3), 키프로스에서 선교
하다(4-12),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하다(13-52).

이코니온에서 선교하다(14,1-7), 리스트라에서 선교하다(8-20), 선
교를 마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21-28).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열리다(15,1-21), 사도 회의에서 안티오키
아로 편지를 보내다(22-35),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다(36-41).

티모테오를 데리고 가다(16,1-5), 마케도니아에 관한 환시를 보다
(6-10), 필리피에서 리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다(11-15), 바
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다(16-40).

테살로니카에서 선교하다(17,1-9), 베로이아에서 선교하다(10-15),
아테네에서 선교하다(16-34).

코린토에서 선교하다(18,1-17),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18-23), 아
폴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24-28).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19,1-10),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다
(11-20), 에페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다(21-40).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20,1-6), 트로아스에서 에우
티코스를 되살리다(7-12),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향해
하다(13-16),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17-38).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21,1-16), 야고보를 방문하다(17-26), 성전
에서 체포되다(27-36), 자신을 변호하다(37-40).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다(22,22-29), 최고 의회에 출두하다(30).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23,12-22), 바오로가
카이사리아로 총독에게 호송되다(23-35).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총독에게 고발하다(24,1-9), 바오로가 변론하
다(10-23),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지내다(24-27).

황제에게 상소하다(25,1-12),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 앞에 서다(13-27)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변론하다(26,1-32).

로마로 출발하다(27,1-12),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13-38), 배가 부서지다(39-44).
바오로가 몰타 섬에서 지내다(28,1-10), 몰타에서 로마로 가다(11-16), 로마에서 선교하다(17-31).

5. 요한 복음서

머리글(1,1-18), 세례자 요한의 증언(19-28), 하느님의 어린양(29-34), 첫 제자들(35-42),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43-51).
카나의 혼인 잔치(2,1-12), 성전을 정화하시다(13-22),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23-25).
니코데모와 이야기하시다(3,1-21),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22-30), 하늘에서 오시는 분(31-36).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4,1-42),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43-54).
벧자타 못 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5,1-18), 아드님의 권한(19-30),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31-47).
오천 명을 먹이시다(6,1-15), 물 위를 걸으시다(16-21), 생명의 빵(22-59), 영원한 생명의 말씀(60-71).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7,1-9), 초막절에 가르치시다(10-24),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25-31),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32-36),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37-39),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40-44),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45-52), 간음하다 잡힌 여자(7,53-8,11).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20), 예수님의 신원(21-30),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31-47),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48-59).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9,1-12), 바리사이드들이 개입하다(13-34), 참으로 눈이 먼 사람(35-41).
목자의 비유(10,1-6), 나는 착한 목자다(7-21),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22-39), 요르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다(40-42).
라자로가 죽다(11,1-16),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17-27), 눈물을 흘리시다(28-37),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다(38-44), 최고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다(45-57).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12,1-8), 유대인들이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하다(9-11),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12-19),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다(20-26),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27-36), 유대인들의 불신(37-43), 예수님의 말씀과 심판(44-50).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13,1-20),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21-30), 새 계명(31-35),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36-38).
아버지께 가는 길(14,1-14), 성령을 약속하시다(15-31).
나는 참포도나무다(15,1-1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15,18-16,4).
성령께서 하시는 일(16,5-15),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16-24), 내가 세상을 이겼다(25-33).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다(17,1-5),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6-19),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20-26).
잡히시다(18,1-11),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12-27), 빌라도

에게 신문을 받으시다(28-38),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18,39-19,16).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19,17-27), 숨을 거두시다(28-30),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31-37), 묻히시다(38-42).

부활하시다(20,1-10),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11-18),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19-23), 예수님과 토마스(24-29), 복음서를 쓴 목적(30-31).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21,1-14), 예수님과 베드로(15-19), 예수님께 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20-23), 엮은이의 맺음말(24-25).

6.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1,1), 테살로니카 신자들의 믿음(2-10).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선교(2,1-16), 테살로니카로 다시 가려는 바오로(17-3,13).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4,1-12), 주님의 재림(13-5,11).

마지막 권고와 인사(5,12-28).

7.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인사(1,1-2),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3-12).

종말의 표징(2,1-12), 구원받도록 뽑힌 이들(13-17).

기도 요청(3,1-5), 게으름에 대한 경고(6-15), 축복과 끝 인사(16-18).

8.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1,1-3),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4-9), 코린토 교회의 분열(10-

17), 십자가의 복음(18-31).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2,1-5), 하느님의 지혜(6-16).

복음 선포자의 역할(3,1-23).

그리스도의 사도(4,1-21).

불륜에 대한 단죄(5,1-13).

교우끼리의 송사(6,1-11),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12-20).

혼인 문제(7,1-16), 주님께서 정해 주신 삶(17-24), 혼인과 미혼(25-38), 과부의 재혼(39-40).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8,1-13).

사도의 본보기(9,1-27).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10,1-13), 성찬례와 이교 제사(14-22), 무슨 일이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23-33).

전례 때에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11,2-16), 주님의 만찬(17-34) 하나인 성령과 여러 은사(12,1-11),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12-31) 사랑(13,1-13).

신령한 언어와 예언(14,1-25), 전례의 질서와 통일성(26-40).

그리스도의 부활(15,1-11), 죽은 이들의 부활(12-34),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35-58).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16,1-4), 바오로의 여행 계획(5-12), 마지막 권고와 인사(13-24).

9.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인사(1,1-2), 환난과 하느님의 위로(3-11), 코린토 방문의 연기(12-24)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2,5-11), 티토에 대한 불안(12-13),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14-17).

새 계약의 일꾼(3,1-18).

질그릇에 담긴 보물(4,1-15), 믿음에 따른 삶(16-18).

화해의 봉사직(5,11-21).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6,14-18).

회개에 대한 바오로의 기쁨(7,2-16).

그리스도인의 헌금(8,1-15), 티토 일행의 파견(16-24).

형제들을 돕는 일(9,1-15).

자기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바오로(10,1-18).

바오로와 거짓 사도들(11,1-15), 사도로서 겪는 고난(16-33).

바오로가 받은 환시와 계시(12,1-10), 코린토 교회에 대한 염려(11-21).

마지막 경고와 인사(13,1-13).

10.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인사(1,1-2),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2-11), 사도의 삶과 그리스도(12-26), 믿음을 위한 투쟁(27-30).

일치와 겸손(2,1-11), 세상의 빛(12-18),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파견(19-30).

참된 의로움(3,1-11), 목표를 향한 달음질(12-21).

권고(4,2-9), 선물에 대한 감사(10-20), 끝 인사(21-23).

11.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인사(1,1-3),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4-7), 오네시모스에 대한 부탁(8-22), 끝 인사(23-25).

12.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1,1-5), 복음은 하나(6-10), 바오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위(11-24).

예루살렘 사도 회의(2,1-10), 바오로가 베드로를 나무라다(11-14), 믿음으로 얻는 구원(15-21).

율법과 성령(3,1-5), 율법과 믿음(6-14), 율법과 약속(15-29).

종살이에서 자유로(4,1-7),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라(8-20), 하가르와 사라: 옛 계약과 새 계약(21-31).

그리스도인의 자유(5,1-12), 육과 성령(13-26).

그리스도의 법(6,1-10), 마지막 권고와 축복(11-18).

13.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1,1-7),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의(8-15), 복음의 힘(16-17),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18-32).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2,1-11), 다른 민족들과 율법(12-16), 유대인과 율법(17-29).

하느님의 진실성과 사람들의 죄(3,1-8), 사람은 모두 죄인(9-20),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21-31).

아브라함의 믿음(4,1-12),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13-25),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5,1-11), 아담과 그리스도(12-21).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6,1-14),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종(15-23).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7,1-6), 율법과 죄와 죽음(7-25).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8,1-17), 고난과 희망과 영광(18-30), 하느님

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31-39).

바오로와 이스라엘(9,1-5), 하느님의 이스라엘 선택(6-18),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19-29),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30-33).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10,5-21).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11,1-10), 다른 민족들의 구원(11-24), 온 이
스라엘의 구원(25-32), 하느님 찬미가(33-36).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12,1-8),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9-21).

그리스도인과 권위(13,1-7), 사랑은 율법의 완성(8-10), 그리스도인
의 경각심(11-14).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14,1-12),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13-23).

공동체의 일치(15,1-13), 바오로의 사도직(14-21), 바오로의 여행 계획
(22-33).

끝 인사와 권고(16,1-24), 종결 찬송(25-27).

14.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인사(1,1-2), 감사 기도(3-8), 콜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9-14), 그리
스도 찬가(15-20), 하느님과 화해한 공동체(21-23), 교회를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24-29).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2,6-19), 그리스도와 함께하
는 새 삶(20-23).

그리스도인의 가정(3,18-25).

여러 가지 권고(4,2-6), 끝 인사(7-18).

15.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인사(1,1-2),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3-14), 신자들을 위
한 기도(15-23).

죽음에서 생명으로(2,1-10),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11-22).

이민족들을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3,1-13), 교회를 위한 기도(14-2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4,1-16), 옛 생활과 새 생활(17-24),
새 생활의 규범(25-32).

빛의 자녀 (5,6-20), 아내와 남편(21-33).

16.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다(1,1-4), 천사들보다 위대하
신 아드님(5-14).

고귀한 구원(2,1-4), 구원의 영도자(5-18).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3,1-6),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7-19).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4,14-16).

성숙한 신앙생활(5,11-14).

하느님의 확실한 약속(6,13-20).

멜키체덱의 사제직(7,1-10),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 (11-28).

새 계약의 대사제(8,1-13).

옛 계약의 제사(9,1-10), 새 계약의 제사(11-28).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과(10,1-18), 충실한 신앙생활(19-39).

믿음(11,1-40).

시련과 인내(12,1-13),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14-29).

참된 공동체(13,1-19), 축복과 끝 인사(20-25).

17. 야고보 서간(공동서간)

인사(1,1), 믿음과 시련과 지혜(2-8), 가난한 이와 부자(9-11), 시련과 유혹(12-18),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19-27).
차별 대우(2,1-13), 믿음과 실천(14-26).
말조심(3,1-12), 하늘에서 오는 지혜(13-18).
세상의 친구는 하느님의 적(4,1-10),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11-12), 자만하지 마라(13-17).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5,1-6), 인내와 기도(7-20).

18. 베드로의 첫째 서간(공동서간)

인사(1,1-2), 희망에 대한 감사(3-12),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13-21), 신자 생활(22-2,3).
교회의 기초와 사명(2,4-10), 신자와 이교인(11-12), 선량한 국민(13-17), 충실한 하인(18-25).
아내와 남편(3,1-7), 참다운 신앙 공동체(8-12), 박해에 맞선 확신(13-17), 그리스도의 승리(18-22).
참그리스도인(4,1-6), 종말과 공동체 생활(7-11),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12-19).
지도자들의 의무(5,1-4), 겸손과 깨어 있음(5-11), 끝 인사(12-14).

19. 베드로의 둘째 서간(공동서간)

인사(1,1-2), 그리스도인의 소명(3-11),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12-21).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2,1-22).

주님의 재림(3,1-18).

20. 유다 서간(공동서간)

인사(1,1-2),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3-16), 권고(17-23), 찬송(24-25).

21. 요한의 첫째 서간

머리말: 생명의 말씀(1,1-4), 빛 속에서 살아감(5-10).
사랑의 계명 준수(2,3-11), 그리스도인과 세상(12-28), 의로움의 실천(29).
사랑의 실천(3,11-24).
영의 식별(4,1-6), 사랑과 믿음(7-21).
사랑의 뿌리인 믿음(5,1-12), 맺음말: 영원한 생명(13-21).

22. 요한의 둘째 서간

인사(1,1-3), 진리와 사랑(4-6), 이단자들(7-11), 끝인사(12-13).

23. 요한의 셋째 서간

인사(1,1-4),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5-8), 디오폰레페스(9-10), 데메트리오스(11-12), 끝 인사(13-15).

24. 요한 목시록

머리말(1,1-3), 인사(4-8), 요한의 소명(9-20).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2,1-7),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8-11), 페르가몬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12-17), 티

아티라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18-29).
 사르디스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3,1-6),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7-13),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14-22).
 천상 예배(4,1-11).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양(5,1-14).
 처음 여섯 봉인(6,1-17).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7,1-8),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9-17).
 일곱째 봉인과 금 향로(8,1-5), 처음 네 나팔(6-13).
 다섯째 나팔(9,1-12), 여섯째 나팔(13-21).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10,1-11).
 두 증인(11,1-14), 일곱째 나팔(15-19).
 여인과 용(12,1-18).
 두 짐승(13,1-18).
 어린양과 그의 백성(14,1-5), 심판의 예고(6-13), 마지막 수확(14-20).
 마지막 일곱 재앙의 예고(15,1-8).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16,1-21).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17,1-18).
 바빌론의 패망(18,1-24).
 어린양의 혼인 잔치(19,5-10), 흰말을 타신 분(11-21).
 천년 통치(20,1-6), 사탄의 패망(7-10), 마지막 심판(11-15).
 새 하늘과 새 땅(21,1-8), 새 예루살렘(9-27).
 맺음말(22,6-21).

25.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사목서간)

인사(1,1-2),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3-7), 율법의 역할(8-11),
 바오로의 감사(12-17), 티모테오의 책무(18-20).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2,1-7), 올바른 예배 자세(8-15).
 교회 지도자의 자격(3,1-7), 봉사자의 자격(8-13), 위대한 신앙의 신비(14-16).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4,1-5),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6-16.)
 신자들을 대하는 자세(5,1-2), 과부들에 관한 지침(3-16), 원로들에 관한 지침(17-25).
 종들에 관한 지침(6,1-2), 이단과 탐욕에 관한 경고(3-10), 믿음을 위한 싸움(11-16), 부자들에 관한 지침(17-19), 마지막 권고와 인사(20-21).

26.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사목서간)

인사(1,1-2), 감사와 격려(3-14), 바오로의 반대자와 협력자(15-18).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2,1-13), 인정받는 일꾼(14-26).
 마지막 때의 타락상(3,1-9), 마지막 지시(10-17).
 개인적인 부탁(4,9-18), 끝 인사(19-22).

27. 티토에게 보낸 서간(사목서간)

인사(1,1-4), 교회 지도자의 자격(5-9), 크레타 신자들의 상황(10-16).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지시(2,1-10),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11-15).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3,1-11), 부탁과 인사(12-15).

부록3

참고문헌(가나다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8a 에페소서, 분도출판사, 1998.

박상래,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7 코린토서, 분도출판사, 1993.

박영식, 성경을 읽기 위하여, 성바오로 출판사, 1999.

_____,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6 로마서, 분도출판사, 1996.

생활성서사 역, 성경의 길을 따른 여정 첫걸음 신약 성경1 복음서와 사도 신경, 생활성서사, 2009.

생활성서사 역, 성경의 길을 따른 여정 첫걸음 신약 성경2 서간과 요한 묵시록, 생활성서사, 2010.

신교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8b 콜로새서, 분도출판사, 2000.

안병철, 요한 묵시록,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엘마로, 장,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10 사목서간(티모테오, 티토), 분도출판사, 1986.

_____,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13 요한 1, 2, 3서, 분도출판사, 1992.

영원한도움 성서연구소 편, 성서사십주간 성경읽기안내 신약, 성서와 함께, 2007.

이성근, 200주년 신약 성경 주해, 갈라티아서, 분도출판사, 2001.

이영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4 요한 복음서, 분도출판사, 1996.

이흥기,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11 히브리서, 분도출판사, 1991.

정양모,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1 마태오 복음서, 분도출판사, 1990.

_____,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2 마르코 복음서, 분도출판사, 1981.

_____,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3 루카 복음서, 분도출판사, 1989.

진 토마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12 야고보서·베드로 전 후서·유다서, 분도출판사, 1987.

_____,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9 테살로니카서, 분도출판사, 1981.

_____,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8b 필리피서·필레몬서, 분도출판사, 1991.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신약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10.

허영엽 역,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 길잡이, 기쁜소식, 2006.

성경말씀 맛들이기

선약성경

교회인가 | 2012년 0월 00일
초판 1쇄 | 2012년 6월 29일

지은이 | 심홍보
사진 | 김귀웅

펴낸이 | 전갑수
펴낸곳 | 기쁜소식
등록일 | 1989년 12월 8일
등록번호 | 제 1-983호

136-875 서울 성북구 성북로 5길 44(성북동 1가)
☎ 02 · 762 · 1194 FAX 02 · 741 · 7673
E-mail : goodnews1989@hanmail.net

가격 0,000원

ISBN 978